

“노동자는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를 원한다”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사드배치 철회,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 통선대 역대 최대 규모

민주노총이 8월15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사드배치 철회와 평화를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15 범국민 평화행동’에 앞서 개최한 노동자대회에서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 투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

▲친일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전민족대회 성사 투쟁 등을 결의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노동자가 열자”라며 “노동자는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를 원한다”고



선언했다.

‘8.15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18기 중앙통일선봉대 300여 명이 무대에 오르며 열기가 최고로 올랐다. 박상준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대장을 맡아 7일부터 8일 동안 전국을 누빈 2017년 통일선봉대는 참가

자가 연인원 5천명을 넘겨 역대 가장 큰 규모였다.

박상준 중앙통일선봉대장은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철수 투쟁에 나서자”라고 호소했다.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벌인 ‘8.15 범국민평화행

동’에 1만여 명이 운집했다. 대회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청년들은 ▲사드 철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외치며 북 1천여 개와 빨간 우산 1만여 개를 동원한 상징의식을 펼쳤다.

노조파괴 유시영, 2심도 실형

16일, 대전고등법원 판결...징역 1년2개월, 1심보다 형량 줄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8월14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던 1심 선고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과

정이균 아산공장 관리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성옥 영동공장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성기업은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등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

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앞서 2월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기봉 아산공장 부사장, 최성옥 영동공장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